

이영표 이을 한국축구 차세대 '명품백' 전남 윤석영 꺾 QPR 간다



‘홍명보호’의 런던올림픽 동메달 주역 왼쪽 수비수 윤석영(23·전남)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레인저스(QPR)로 이적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런던올림픽 예선 멕시코와 경기에서 드리블하는 윤석영. /연합뉴스

■ 윤석영은 누구

출생 : 1990년 2월 13일
 신체 : 182cm 74kg
 학력 : 장흥초·장흥중·광양제철고
 경력 : 2009년 전남드래곤즈 입단
 K리그 4시즌 4골 10도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2 런던올림픽 동메달
 2012 브라질 월드컵예선 국가대표

박지성과 한솔밤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윤석영(23)이 박지성(32)과 한솔밤을 먹는다.

전남 드래곤즈는 24일 “윤석영을 박지성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퀸스파크레인저스 FC (이하 QPR)로 이적시키기로 했다”며 “정식 계약은 QPR에서 실시하는 메디컬 테스트 통과 후 체결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윤석영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박지성(QPR), 이영표(토트넘), 설기현(풀럼), 이도국(미들즈브러),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조원희(위건), 이정용(볼턴), 지동원(선덜랜드), 박주영(아스널), 기성용(스완지)에 이어 11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된다.

전남은 광양제철고 출신의 지동원에 이어 윤석영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진출시키며 탄탄한 유스팀 전력을 과시했다.

장흥초-장흥중을 나온 윤석영은 2009년 전남 유스인 광양제철고 졸업과 함께 우선 지명으로 전남 유니폼을 입었으며, K리그 4시즌 동안 8경기에서 4골 10도움을 올렸다.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선수권대회와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대표팀을 거친 윤석영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전 경기에 출전해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오버래핑 실력으로 ‘포스트 이영표’로 눈길을 끌며 지난해 9월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최강의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해외 클럽팀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며 풀럼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석영의 행선지는 QPR이 됐다.

전남은 “QPR이 최근 퍼디낸드 이적 등으로 약해진 수비진 보강 및 측면 공격지원 강화를 위해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만큼 출전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봤다”며 “또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만큼 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윤석영 측과 협의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QPR은 2승9무12패(승점 15)로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물고 있지만 1월 5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강등탈출의 불씨를 살렸다.

한편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윤석영은 메디컬 테스트를 위해 영국으로 이동했다. 선수 계약기간, 이적료 및 연봉 등 세부 계약조건은 양 구단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하석주 전남 감독 “EPL 정상급 풀백 활약 기대”

전문가들 “최고의 선택” 한목소리

왼쪽 풀백 윤석영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레인저스(QPR) 입단은 최고의 선택으로 풀린다.

즉시 전력으로 기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베테랑 동료 박지성의 든든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영이 시즌 중 열리는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입단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전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박문성 SBS ESPN 해설위원은 “겨울시장을 통해 이적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며 “특히 QPR의 경우는 기대주를 데려올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레드잡 감독의 후반기 좌우 풀백 구상이 왼쪽 윤석영, 오른쪽 파비우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영이 국제무대에서 잘해왔다는 점을 볼 때 몸만 만들어지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풀백으로서 윤석영이 지닌 기량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나왔다.

김대길 KBS N 해설위원은 “런던올림픽과 같은 국제무대를 통해 윤석영은 왼쪽 수비수로서 모든 자질을 갖춘 선수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QPR이 하위권에서 생존을 위해 뛰는 팀이라서 윤석영이 경기할 여건이 바로 마련됐다”며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들이 겪는 적응 문제도 같은 팀에서 뛰는 베테랑 박지성의 존재 덕분에 해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하석주 감독도 어려움을 견디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하 감독은 “프리미어리그는 거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마크하고 수비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당장은 경쟁이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선수라 미래를 위한 큰 경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석영이 주어진 긍정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풀백으로 활약한 이영표처럼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우린 웬블리로 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왼쪽)이 24일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캐피털원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첫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스완지 110년만에 첫 결승 이끌어

리그컵 준결승 첼시에 1·2차전 합계 2-0 승리

2월 24일 ‘돌풍’ 4부리그 브래드퍼드와 패권다툼

기성용(24)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110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컵 결승에 올랐다.

스완지시티는 24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2013 캐피털원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첼시와 0-0으로 비겼다.

지난 9일 1차전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완승한 스완지시티는 1·2차전 합계 2-0으로 승리. 1912년 창단 이후 FA컵과 리그컵 등을 합쳐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기성용은 4강 2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힘을 보탤다.

스완지시티는 4부리그 팀으로는 51년만에 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킨 브래드퍼드 시티와 다음달 24일 ‘축구의 성지’로 불리는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1960년 시작된 리그컵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1~4부 92개팀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로, 현재는 스폰서의 이름에 따라 ‘캐피털원컵’으로 불린다.

이 대회에서만 4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첼시는 지난 9일 홈에서 발목잡힌 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1차전에서 승리한 스완지시티는 2차전 초반부터 활발한 공격을 이어갔다.

전반 8분 역수 상황에서 웨인 라우틀리지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절묘한 발리슛으로 첼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기성용은 주로 중앙에서 서 있으면서도 측면을 가리지 않고 뛰어나다며 볼 공급에 힘썼다. 빠른 공수전환을 앞세워 첼시를 봉쇄한 스완지시티는 전반 37분 기성용이 상대 선수의 태클에 다치는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라미레스가 기성용의 발목쪽을 향해 태클을 걸었고, 오른쪽 발목이 꺾이며 넘어진 기성용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상태를 점검받고서 약 3분이 지나 다시 뛰기 시작, 미카엘 라우드럽 감독의 근심을 덜어냈다.

/연합뉴스

獨 프랑크푸르트 활약 차범근

팬들이 뽑은 ‘레전드 11’ 선정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차범근(60) 전 수원 삼성 감독이 자신이 뛰었던 구단의 ‘레전드(전설)’로 선정됐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구단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팬들이 뽑은 ‘레전드 11’을 발표했다.

1만5000여명이 참가한 이 투표에서 차 전 감독은 베른트 헤켈바인, 안토니 예보와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구단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감독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유니폼을 입고 122경기에서 46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다. 1979-1980 유럽축구연맹(Uefa)컵, 1980-1981 독일 축구협회 포칼에서 팀 우승에 이바지하며 ‘차범’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연합뉴스

‘항색돌풍’ 리나, 샤라포바 꺾었다

세계 1위 아자렌카와 ‘여왕’ 다툼

호주오픈 테니스 준결승

2011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우승자인 리나(69·중국)가 빅토리아 아자렌카(1위·벨라루스)와 26일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300만 호주달러) 결승에서 맞붙는다.

리나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난적 마리아 샤라포바(2위·러시아)를 2-0(6-2, 6-2)으로 물리쳤다. 2년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른 리나는 생애 2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노린다. 리나는 2년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로 메이저대회 결승에 오른 적이 없다. 아울러 2년만에 호주 오픈 결승에 진출, 당시 준우승에 그친 설음 탈아내기(오스트리아)에게 2-(0-6, 3-6, 2-0)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9게임만 내주며 승승장구하던 샤라포바는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패배를 고프었다.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면 세계랭킹 1위 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던 샤라포바는 1위 탈환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전까지 12차례 맞대결에서 4승8패를 기록한 리나가 뒤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승부의 추는 일찌감치 리나 쪽으로 기울었다.

빅토리아 아자렌카(1위·벨라루스)는 24일 슬론 스티븐스(29위·미국)와 가진 준결승전에서 2-0(6-1, 6-4)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주니어 남자 복식에 나선 정현(삼일공고)-김덕영(마포고)조는 준결승에서 막시밀리안 마테라(독일)-루카스 마이들러(오스트리아)조에 2-(0-6, 3-6, 2-0)으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달킴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차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차 오솔목,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차 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마상쇼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토크,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2월28일까지 적용됩니다.(설연휴기간 3만원추가)

태백산 눈꽃축제 1박2일 ₩159,000원
 커피박물관/설악산/낙산사/정동진/석탄박물관/태백산 눈꽃축제장
 출발일 1월26일, 29일, 30일, 31일 / 2월1일, 2일
 숙소: 낙산-메리엘콘도(5인1실 이용기준)2-4인실사용시 요금추가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 ₩95,000원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에서 즐기는 스키
 포함사항: 왕복28인승버스, 리프트이용권, 렌탈50%할인권

백두대간 선지령 풍차길 눈꽃트래킹 ₩45,000원
 대관령정상대 - 양떼목장 - 통진중개소 - 동해바다조망
 - 정상(1,157m) - 하산 4-5시간 트래킹

강릉 안목항 커피거리 + 커피박물관 ₩60,000원
 대한민국 최초 커피박물관 관람 및 체험관광 안목항 커피거리 자유시간
 출발일 1,2월달 매주 토요일/일요일
 1월 19, 20, 26, 27일 2월 2,3,9,10,16,17,23,24일
 휴관: 사랑관방부어